쉽게 배우는 〈선요〉 재가자에 '인기열풍'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 3기 개강

9월 26일까지 매주 月 실시
50여 명 불자 몰려들어
2014년 1기 이후 꾸준한 참여
"쉽고 명확한 설명 이해 쉬워"
후원단체 '열린 원우회' 조직도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가 마련한 경전 강의 '원순 스님이 들려주는 〈선요〉'가 부산불교실업인회 법당 묘광선원서 문을 열었다. 강의는 5월 23일~9월 26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된다.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불교공부, 어떻게 하면 쉽게 배울 수 있을까?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원장 김윤희)가 마련한 경전 강의 '원순 스님이 들려주는 〈선요〉'가 문을 열었다. 이번 강의는 5월 23일~9월 26일 매주 월요일 부산불교실업인회 법당 묘광선원서 진행된다.

첫 강의가 열린 지난 5월 23일엔 50여 명의 재가불자들이 모여들었다. 원순 스님은 '법정 스님과의 일화', '법에 대해 재가자가 가져야할 자세' 등 꼼꼼하고 폭넓은 설명으로 재가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특히 스님은 그동안 번영한 〈금강경〉 〈대승기신론〉 〈증도가〉 등 여러 경전을 부가 설명함으로써 〈선요〉의 이해를 도왔다.

김태우 불자는 "〈선요〉를 들으면서 〈금강경 오가해〉까지 함께 이해된다. 스님께서 항상 강의경전 뿐 아니라 여러 경전들과 비교 · 해석하며 정리해주시기 때문에 1기 때 배운 〈원각경〉 강의까지 명확하게 기억난다"고 말했다.

또한 불자들은 꼼꼼한 불교용어 정리로 인해 혼자 복습할 때도 훨씬 수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경희 불자는 "일목요연함이 곧 힘이 된다. 용어들을 정리하며 공부하면, 기억이 저절로 되고 다른 어려운 책을 볼 때도 이해가 쉽다"며 "어렵게만 느꼈던 불교공부를 쉽게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며 웃어보였다.

이와 관련 원순 스님은 "재가자들이 불교공부가 어렵단 선입견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교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라는 것.

스님은 "팔만사천 법문이 서로 엮여 이해돼야 한다. 불교가 어렵단 편견을 버려라"며 "부처님께선 여러 대중에게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셨다. 설명을 잘 듣고 나면 불교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는 2014년 4월 1기 〈원각경〉 강의로 첫 문을 열었다. 그 후 2기 〈대승기신론〉강의와 3기 〈선요〉로 이어오고 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1기 강의부터 참석했다. 또한 새로운 불자들의 참여도 늘고 있는 추세다.

김윤희 원장은 "강의를 들은 불자들은 대부분 다시 찾는다. 또한 불자들 사이에 원순 스님 후원 단체인 '열린 원우회'를 자체적으로 조직 할 정도로 인기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가 강의 대중화를 꾀하며, 홈페이지(www.open-buddhism.com)를 신설했다. 홈페이지엔 원순 스님 강의 동영상 및 경전 번역서 등 자료가 담겨 있으며, 누구나 듣고 공부 할 수 있다.

한편 원순 스님은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조계종 교재 편찬 위원을 역임한 스님은 현재 송광사 인월암에 주석하며 조계종 기본선원 교선사(敎禪師)로서 어록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원순 역해 금강경오가해설의 〈규봉 스님 금강경〉, 〈함허 스님 금강경〉, 〈육조 스님 금강경〉, 〈야부 스님 금강경〉, 〈종경 스님 금강경〉, 〈부대사 금강경〉, 〈치문〉, 〈돈황 법보단경〉, 〈신심명 · 증도가〉, 〈진심직설〉, 〈마음을 바로 봅시다〉 등 외 다수가 있다.

하성미 기자

불교TV 남성중창단 새 앨범… "음악에 경전 내용 담아"

6월 12일 부터 순회 콘서트
대행 스님 법문 곡으로 수록

BTN불교TV 남성중창단이 새 앨범 '연꽃향기 두 번째 이야기-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을 발매하고 기념 콘서트를 개최한다. 콘서트는 6월 12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강당 공연을 시작으로 영남 지역 순회공연으로 진행된다.

BTN불교TV 남성중창단(단장 추현철)은 새 앨범 '연꽃향기 두 번째 이야기-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이하 연꽃향기)을 발매하고 기념 콘서트를 개최한다.

콘서트는 6월 12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강당 공연을 시작으로 △6월 30일 포항 대잠홀 오후 7시 30분 △7월 19일 오후 7시 30분 청주 아트홀 △8월 27일 오후 5시 울진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다. 순회공연이 부산과 영남지역에서 마련될 계획이며, 울산과 창원은 현재 장소와 시간을 협의 중이다.

앨범 '연꽃향기'는 18곡 가운데 신작이 15곡이다. 새로운 곡을 소개해 다양한 찬불가 확대와 창작 발전에 도움을 주겠단 의지를 담았다. 특히 불국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천년의 꿈'과 '꽃을 바치나이다' 등 남성 합창단의 강점인 중저음을 살린 명상곡과 더불어,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이 담긴 '그 마음 그대로' 등이 수록됐다.

추현철 단장은 "수익을 위해선 사실 많이 알려진 곡을 담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금 찬불가 현황을 보면 너무 곡이 한정돼 있어 안타까웠다"며 "작곡가들의 숨겨진 명곡을 소개하고, 더 다양한 곡을 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 단장은 "큰 스님 법문과 게송이 담긴 것이 찬불가다. 찬불가는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편하게 다가가 불교를 접하게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깊은 내용이 담겨있어 그 힘은 더욱 놀랍다"며 "찬불가가 불자들의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 앨범 '연꽃향기' CD의 자켓.

새 앨범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은 6월부터 일반 시중에서 구입 할 수 있다.

한편 BTN불교TV남성중창단은 2013년 12월 창단됐다. 부산과 영남지역에서 활동하며 반주자를 포함, 7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모두 성악을 전공한 재원들이다. 현재 미용사, 혜원정사, 대구 BTN불교TV 여성합창단 등 불교 단체 및 사찰서 지휘를 맡고 있다.

(010)8250-9789 하성미 기자

"호국영령과 보훈가족 위로하길"

진여원, 6월 10일 위령재 및 위안행사 개최

부산 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은 6월 10일 오전 9시 부산 화명동 신도시 제3근린공원(추모공원)에서 '호국 영령을 위한 위령재와 보훈가족 위안 행사'를 개최한다.

1부는 동암 스님(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의 위령재로 시작한다. 이어 2부에선 극락왕생기원 등 밝히기, 내빈 헌화 및 분향, 제 53사단 장병 조총 발사 및 진혼곡 연주,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3부에선 보훈가족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특히 진여원은 보훈 가족에게 장학금과 감사패를 전달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가족들을 위로한다. 장학금은 총 600만원이며, 보훈가족 자녀 총 14명에게 전달한다. 장학금은 진여원 불자들이 봉축을 축하하며 보시한 성금으로 마련됐다.

부산 진여원은 '제18회 진여 호국영령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 행사'를 6월 10일 오전 9시 부산 화명동 신도시 제3근린공원(추모공원)에서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 모습.

한편 이번 행사에는 남보타월 원장을 비롯해 내빈 및 유가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글쓰기 통한 생명의 가치 전달"

생명나눔 부산본부, 제9회 백일장 개최

생명나눔실천 부산본부(본부장 원범)는 5월 22일 서면 영광도서에서 제9회 생명나눔 시 · 산문 백일장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엔 부산 시내 고등학생 67명, 중학생 55명이 참석했다.

백일장 주제는 중등부 '새싹 희망', 고등부 '스마트 폰', '인연'이었다. '새싹 희망'은 작은 생명도 소중하단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선정했으며, '스마트 폰'과 '인연'은 현대 문명과 인연의 관계를 짚어보고 현대 문물의 장단점을 고찰하기 위해 주어졌다.

손설빈 학생(해동고 · 2년)은 '인연'을 주제로 시를 쓰며 "편리함을 추구하는 요즘 시대에 인연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부본부장 자인 스님은 "참여한 학생들이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문화 시민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본부가 제9회 생명나눔 시 · 산문 백일장을 6월 22일 서면 영광도서 문화사랑방에서 개최했다.

한편 이 대회를 통해 생명나눔실천 부산본부는 장기기증과 난치병 환우돕기 · 가족사랑 등 다양한 주제를 제시하고, 청소년들에게 생명나눔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하성미 기자

지역 거점형 사회복지관 실천 과제 찾다

용호사회복지관, 6월 2일 개관20주년 기념 세미나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6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관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는 '지역복지 거점형 사회복지관 이념과 실천과제'로, 부산 사회복지 관련자 및 시설 종사자들에게 실천적 역할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기조강연은 김영종 경성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지역복지 거점형 사회복지관-이념과 실천과제'를 주제로 맡았다. 이어 고재수 부산시 복지서비스 팀장, 이언상 일본 동지사대학 교수, 정병오 하안종합사회복지관장, 이춘성 관장의 발표 및 종합토론이 이어 진다.

이춘성 관장은 "이번 개관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통해 사회복지관의 정체성 논란에 대해 고찰하고, 주민중심 복지실천 네트워크의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 · 정립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